

라도 더 많은 글을 써본 선배로서 후배 여러분께 제가 가졌던 글쓰기의 태도와 그 실천방법을 한번이라도 검토해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글쓰기 방식을 만들어나가는데에 작게나마 조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문제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담의 방법

박미란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매학기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글과 고민을 가지고 글쓰기교실에 찾아온다. 글의 종류와 주제가 제각각일 뿐 아니라 구상 단계나 개요 작성, 혹은 초고 작성 등 찾아오는 단계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문제나 그것을 더 나은 글로 만들기 위한 상담 방법 또한 한두 가지로 쉽게 정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은 글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문제제기가 뚜렷하지 않음’이라는 지점이다.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 좋은 글이 갖춰야 하는 수많은 요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일일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쓰는 글이 ‘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며 문제의식을 가져보고, 그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자세는 능동적인 배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비록 학생들이 상담을 위해 가져온 글에서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문제의식을 상담 과정에서의 대화를 통해 이끌어주며 그것을 선명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식이나 글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글을 대략 두 종류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서론에서 주제나 연구대상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한 후, 문제제기나 연구방향이 논리적 흐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글은 도입 부분이 자세하고, 문제 제기나 연구방향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문제제기가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글의 경우 실제로 학생들의 내면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글은 왜 그 문제의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연구 지점으로서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자신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맥락이나 관점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상담을 했던 학생 중,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여러 비유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관점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는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동굴의 비유’에 대해 철학자들의 희생적 계몽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 도입으로서 동굴의 비유와 이데아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고 그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플라톤은 철학자들의 계몽에 대한 시도가 얼마나 어렵고 또한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려 한다. 동굴의 비유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경우 플라톤이 지향한 교육의 방향성과 이것의 반복 정도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동굴 밖 세계를 접한 죄수를 다시 동굴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플라톤은 본문에서 실제로 이 논쟁에 대해 다룬다. [...] 그러나 이 주장들은 분명 허점이 많은 것들로 플라톤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음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밑줄은 인용자)

서론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요약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었으나, 학생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그러한 이데아론과 어떤 논의의 연관성이 없이 갑자기 등장한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글의 관점 또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때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학생에게 ‘동굴의 비유’라는 연구대상을 선택한 이유와 ‘희생적 계몽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 이유를 묻는 것이다. 학생은 죄수를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강제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상담의 과정은 사실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라기보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이자, 학생 자신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을 파헤쳐 보게 하는 과정이다. 상담자는 다시 학생에게 그렇다면 왜 플라톤은 그런 ‘강제적인 희생’을 중요하게 여겼을까를 질문했고, 학생은 플라톤은 그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

이어 상담자는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사회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 도덕적 관점과 효용적 관점을 어떤 의미로 규정할 것인지, 왜 효용적인 것은 도덕적이지 않은지, 희생이 아니라 자율적 선택으로 이해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처럼 상담자는 학생이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던졌어야 하는 질문들, 예컨대 연구 대상에 대

한 이해의 정도, 주요 개념들의 의미, 예상되는 반론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다듬고 배경지식과의 맥락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결국 연구 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즉 자신의 문제의식이 지닌 의의를 찾아내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질문의 과정을 통해 학생이 가진 문제의식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의 자율성의 대립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회가 부여하는 강제적 책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제기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학생은 개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플라톤의 이상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일 수는 있을지언정 도덕적이지는 않다는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서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동굴 밖 세계를 접한 죄수를 다시 동굴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물음이다. 동굴의 비유는 한 사회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기에, 그 이상사회의 성격과 이상사회에 이르는 단계들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굴 밖으로 나온 죄수를 동굴 안으로 돌려보내는 부분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역할을 지적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이상사회의 정당성을 짚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 또한 『국가』에서 이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주장들은 분명 허점이 많은 것들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밑줄은 인용자)

이와 같이 질문-대답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면서 학생은 자신의 문제의식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이 글에서 말하는 ‘도덕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더해주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이데아론에서 드러나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논증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문제 의식이나 글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연구 대상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가는 지점이 너무 많아서 주제를 선명하게 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앞서 살펴 본 첫 번째 경우가 의문점은 있으나 그것의 맥락 및 연구의 필요성을 결여한 상태라면, 두 번째 경우는 분명한 의문점 자체를 갖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분산되어 있는 흥미와 관심을 여러 가지로 찾아내고 그러한 관심 지점 중 정도가 큰 것들이나 연관성이 큰 것들을 연

결해 보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심 지점들 사이의 층위를 그려보게 하거나, 각각의 관심 지점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생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의문점을 발견한다면, 상담자는 앞서의 첫 번째 유형처럼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질문으로 이어간다.

연구 대상을 꼼꼼히 살피면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버리는 과정은 의미 있는 글을 만들기 위한 기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관심사는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는 주제를 '제시해주는' 역할일 수는 없으며 학생과 대화하면서 문제의식을 '이끌어주고', '다듬어주는' 역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 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자는 학생의 관심과 동기를 이해하게 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담긴 문제의식을 다듬어가거나,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보충해야 할 다른 과정을 깨닫는다. 학생들이 처음에 지녔던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문제의식은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갖춰간다.

자신만의 학습 레시피를 찾아라!

● ● ●
신 서 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상담실 객원상담원

학습상담실에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찾아온다. 어떤 학생들은 특정 과목의 학점을 높일 수 있는 학습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지가 약해서 공부가 꾸준히 되지 않는다며 의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면 과연 학습과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들이 해결될까? 인터넷과 서점에 넘쳐나는 다양한 학습전략과 학습방법에 관한 글들, 또 자기계발 서적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 것일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학습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한다. 특히나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은 이미 학창시절에 학습과 관련된 성공경험들이 있는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와서 학습이 꾸준히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대답은 매우 간단할지도 모른다. 모르지만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착각으로 인한 잘못된 귀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학습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한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상상해보자. 먼저 그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적합한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에 민감해서 조그마한 시계소리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공부가 잘 되지 않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면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다. 또 학습을 시작한다는 건 상당한 내적 또는 외적 동기가 필요한 일이다.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에 학습을 한다는 건 그보다 더 큰 동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우리 몸의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좋지 않아서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졸음을 참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전공 서적이 온통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해서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은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어제 부모님과 다툼이 있었을 때 들었던 말들이